

번호 I-6

제 목	국문	정신보건법시행이 정신질환자의 병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일개 전문정신병원을 중심으로 -			
	영문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nforcement of Mental Health Law to the hospital utilization			
저 자 및 소 속	국문	김경민*, 윤태영, 최중명, 박순영, 유동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의료행정학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Kyung Miin Kim*, Tai Young Yoon, Joong Myung Choi, Soon Young Park, Dong Joon Lew Dept. of Medic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Dep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신보건법의 시행이 정신질환자들의 정신전문병원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전문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정신보건법 시행 이전인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와 시행 이후인 1997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연간입원환자 현황 및 평균재원일수, 병상회전율, 퇴원환자 및 외래환자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였고, 심사청구의 승인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가. 정신질환자의 병원이용 양상은 정신보건법 시행 및 1차 개정 전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의료보험환자와는 달리 의료보호환자에서는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에 입·퇴원 환자수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나.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장기입원 형태의 치료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알콜중독 환자에서는 장기입원치료에서 단기입원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다.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는 정신분열병 환자가 전체의 84.8%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환자의 49.9%가 친족 보호의무자가 없으며, 의료보호환자가 92.6%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장 승인의 경우와 0.83%의 낮은 불승인율을 보였다.

4. 고찰

정신보건법 시행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장기입원환자의 감소는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알콜중독 환자에서만 영향을 보였다. 계속입원심사에서는 치료의사와 보호의무자의 의지가 주로 반영되고 환자 자신의 재활의지는 충분히 반영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며, 장기입원하는 의료보호환자들에 대한 지역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